

검의 형, 검의 이치 / 안인기(미술비평), 2004

유명한 <전쟁론>의 저자이며 나폴레옹의 침공으로부터 프로이센을 구한 전략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펜 대신 칼을 택한 정치의 연속으로 정의하였다. 칼의 정치라는 전쟁은 최고 지략과 기술, 희생과 영광이 교차하는 극단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 칼은 그 어원에서도 '이기다'의 뜻을 지닌 것이라 하니 칼을 지닌다는 것은 곧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를 통한 군림과 지배의 효과가 동반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대사회로부터 칼은 단순한 무기의 기능을 넘어 숭배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칼은 돌과 땅의 의미를 공유한다. 칼은 돌의 옛말인 단, 돌과 같은 어원이며 또한 땅을 뜻하는 단, 따, 달 등의 어원과 같다. 칼, 돌, 땅의 어원적 유사성은 칼의 원형이 석기시대의 돌검이며 그것으로 땅과 생명을 수호하였음을 알게 한다. 즉 칼로 인해 수렵 생활로부터 농경사회로의 이행되었으며 칼은 땅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발견하게 만든 특별한 사물이었다. 이처럼 칼이 땅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확산시킨 대상이었다는 면에서 흙을 빚어 검을 만든 최정윤의 작업들은 클라우제비츠처럼 칼의 파괴적 기능이 아닌 보다 근원적이고 생산적 기능과 관련된 기원을 추적하는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최정윤이 선보인 검들은 우리의 청동기시대를 구성하는 비파형, 세형동검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3천 년 전의 시간으로 회귀하는 최정윤의 청동기시대 모티프는 1999년 첫 개인전의 '삼족기' 작업이후 지속된 공통점이다. 고대 중국 전설로부터 기원하여 종묘의식, 주술적 기원과 영혼의 위무를 목적으로 제작된 삼족기는 제국의 수호물이자 황위의 정통성과 벽사의 상징으로 후대에도 계속 제작되었다. 그것의 표면은 도철문, 뇌문(雷紋) 등 다양한 문양으로 신령스러움을 더하고 상상의 괴수와 동물 형상들을 새겨 넣음으로써 중국 특유의 에너지와 힘을 느끼게 하였다. 최정윤이 삼족기를 차용하였던 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이겨낸 신비로움과 퇴적된 시간이 표현하는 과거의 영화로움과 무상함에 대한 암시가 가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고대 삼족기의 원형과 유사한 형태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점차로 현대적 추상조각처럼 볼륨감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형하였고 표면 문양이나 제례용기(聖餐皿)로서의 구조로부터도 이탈하였다. 작품 표면은 동록(patina)의 오랜 시간성을 암시하는 유약효과를 강조하였고 세 개의 다리라는 명명학적인 구조도 유지하였다. 최정윤이 도달한 최근의 작업은 삼족기 자체가 하나의 고대 생명체이거나 화석과 같은 생명의 흔적을 지닌 독자적 조형물로 매듭지으려는 듯하였다. 그러던 중 최정윤은 검의 형상으로 도약하였고 그것에서 어떠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삼족기가 중국 청동기문화의 정수라면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는 청동검에서 화려하게 꽃피었다. 칼은 양날의 검(劍)과 한 날의 도(刀)로 나누어지며 고대사회는 검이, 철기문명 이후로는 도가 주로 이용되었다. 검은 우리 고대사회의 신적 군장을 상징한다. 단군신화에서 검은 천손의 후예라는 징표로서 천부인(天符印)의 하나였다. 중국 고기의 하나인 <관자(管子)>에 따르면 그러한 검의 최초 제작자는 동이족의 왕인 치우(蚩尤)였다고 하는데, 측구응원단인 '붉은 악마'의 심벌로도 잘 알려진 치우는 배달국의 14대 천왕으로서 중국에서조차 군신으로 섬겨졌다. 이처럼 선민사상의 표상인 청동 검은 대륙을 넘나들던 민족의 기상과 고대사의 영화가 함께 자리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간직한 셈이다.

최정윤이 청동검의 원형을 차용하기로 함으로써 그는 검의 형상적 상징성과 더불어 고대사의 비밀을 동시에 연상시키게 되었다. 이전 삼족기 작업에서 보였던 순수 조형적 변안과 변형과는 다른 차원의 조형 의지와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동검은 그것이 비록 삼천 년 이상의 역사를 거슬러가는 고대의 유물이지만 삼족기처럼 단순한 흥밋거리를 벗어나는 우리 역사의 실체인 것이다. 그는 청동검의 형상을 빌어 고조선 청동기 문명의 우수성과 파괴력이라는 무기로서 검의 기능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의기, 권위, 권능, 주술, 벽사, 과시, 수호, 응징의 신화 체계를 가 공한다. 즉 최정윤의 검은 한편으로는 역사 기록 이전에 제작되어 사물로만 남은 우리 민족의 황금시대를 복원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시간을 돌이키려는 낭만적 모험을 감행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검들은 역사 복원의 무위와 황금시대의 상실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검이 구성하였던 기존의 상징구조를 해체하고자 한다. 앞서 논했듯이 최정윤이 만든 검은 실제 청동으로 주조한 것도 아니며 원래의 모양을 본 딴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검의 추상적 기억을 바탕으로 조작된 검의 신기루에 가깝다. 검의 신기루는 그동안 검이 누린 권능과 힘, 정복과 승리의 상징을 바탕으로 삼으면서도 그로부터의 이탈하는 것이다.

최정윤의 검들은 청동보다 더욱 연약하고 비효율적인 흙을 모태로 태어났다. 흙은 물, 불, 공기의 연금술을 거쳐 돌로 변하게 되는데 최정윤의 검들은 청동기시대의 동검이 모형으로 삼았던 마제석검의 물성으로 제시됨으로써 이중 복제의 역설을 드러내었다. 무기로서의 실전성으로부터 더욱 멀어졌으며 더욱 무겁고 거대해졌다. 부장품으로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닌 높은 단을 무대로 더욱 극적인 형태로 세워지거나 황금 박편으로 덮어씌움으로써 그 물신성을 극대화하였다. 검으로써만이 검을 이길 수 있다는 교훈처럼 검의 신기루를 통해 오히려 실재하는 검의 환영은 재고

될 수 있다. 이제 검은 농경사회의 정착을 이룬 힘의 원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도의 실천을 검리(劍理)로 보아 살상과 파괴로부터 용화와 깨달음을 매개하는 구도의 수단으로 검을 사고했던 도교적 관점은 최정윤의 작업에도 발견된다. 풍진이 모여 돌이 되는 자연의 이치를 닮은 도예의 순리를 따르면서도 인위와 문명의 영화와 무상을 알리는 실천일 수 있음을 최정윤의 석검은 보여주고 있다.

The shape of swords./ The principle of swords/

Anh, In-kee(criticizing art), 2004

.....The swords that Choi Jeong Yun used follows the shape of the Sae Hyeong Dong sword and Bipa which was practically the formation of the Chung Dong Gee Era. His motif of going back 3000 years into the Chung Dong Gee Era is the continuation of his first private exhibition in 1999 called the Three Legged Bowl. The three legged bowl originates from the Chinese ancient legend. It is a product made with the aim of a spiritual duty plus the originality of the ancestral shrine and incantation; a special kind of water that protects the empire. This bowl has been continuously made as a symbol of Byuk-sa and as a tradition of Hwang Wee.

The surface is covered in lots of different kinds of patterns such as Do-chul-mun, Nweh-mun etc which adds a spiritual touch to it and furthermore by engraving images of animals and imaginary beasts, one can feel the power and special Chinese energy. The reason why Choi Jeong Yun used the three legged bowl is because he was fascinated by its mysteriousness and extravagance of expressing times in the past and lastly as it was possible to insinuate the superactive.

He started off by using the original or similar shapes of the ancient three legged bowl, then gradually changed it into somewhat like a modern abstract sculpture by exaggerating volume.....